

제4여선교회 반찬만들기봉사

“서로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반찬이 완성됩니다.”



지난 24일 3층 소년부실에서 제4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었다.

담당교역자인 홍민기 목사는 시편 1편을 통해 '복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값없이 복을 받은 만큼, 복 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예배를 마친 선교회회원들은 예배 후 어느 때와 같이 수서명화사회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

처음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량의 밑반찬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서로 즐겁게 나누며 일하다보면 어느새 70인분의 반찬이 완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재료 다듬어서 씻기, 반찬 만들기, 봉지에 나누어서 포장하기,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맡아 지혜롭게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몸은 고된 일임에 틀림없지만 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의 모습은 밝고 행복해 보였다.

“오늘은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주인공입니다”

6월 4일-5일 광림세미나 하우스 (경기도 포천)

4월 꿈이 있는 자유 Concert
교사기도회
각부서별 만남

5월 수목원 산림욕

※ 4일 오후 3시부터 현장등록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이기에... 선생님, 당신은 미래를 만드는 사역자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수고에 깊이 감사하고자 선생님들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선생님, 오늘은 분명,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기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2006 교구 수련회

- 1교구 _ 7월 21-23일 다윗동산(마석)
- 2교구 _ 7월 21-23일 정동수양관(마석)
- 3교구 _ 7월 16-17일 다윗동산(마석)
- 4교구 _ 7월 16-17일 말씀의 집(강화)
- 5교구 _ 7월 21-23일 진새골 사랑의 집(경기 광주)
- 6교구 _ 7월 16-17일 다윗동산(마석)
- 7교구 _ 7월 16-18일 이대수양관(수안보)
- 8교구 _ 6월 17-18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서울)
6월 24-25일 토담골(가평)
- E·M _ 7월 16-17일 양평수양관(양평)

5월 30CUP예배

“미흡한 영혼을 위해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지난 주일(21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 30CUP예배가 있었다. 한 달 동안 소그룹모임을 갖고 3째주에 찬양과 말씀의 예배에 함께 하는 30CUP지체들은 삶의 작은 일들에서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져 가고 있다.

아래의 글은 예배를 마치고 '바베트의만찬'에 작은 정성을 넣은 한 자매의 사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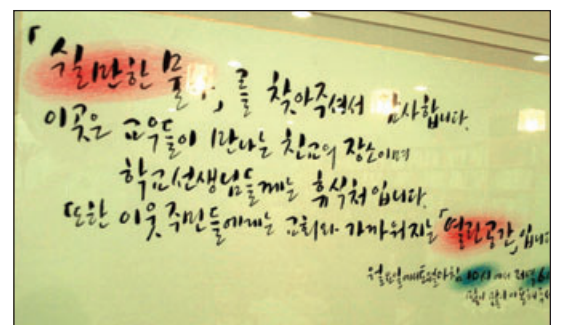
저희 신앙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30CUP예배는 거부하지 않고 참여합니다.
미흡한 영혼들을 위해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 헌금은 크지는 않지만 동전을 모든 돼지 저금통을 아직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을 알지 못하는 저희 신앙과 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30CUP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올림

1층 로비 '실만한 물가'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주세요!”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실만한 물가'는 차와 커피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 장소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물론,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사, 홍성사, 두란노 등 기독교 출판사의 신앙서적 및 주일/수요일설교말씀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다.



함 들 함 울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성을 확립해가는 본지의 목표를 수행할 기사를 모

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자지원 및 신문기사 문의 hamnews2006@naver.com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74호

발행일 : 2006년 5월 28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2006 여름단기선교 '캄보디아' 온 맘 다해 Killing Field에서 Loving Field로

2006년 여름단기선교 비전

캄보디아를 하나님의 사랑(HIS LOVE)으로

- Healing** _ 전쟁으로 무너진 땅과 영혼을 치유하며
- Integrating** _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 되며
- Serving** _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 Loving** _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 Overcoming** _ 가난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 Vitalizing** _ 죽음의 그늘에 덮힌 땅을 살어나게 하며
- Establishing** _ 그 땅에 복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비전입니다.

선교사역본부는 지난 5월 7일 선교사역 본부위원들이 모여 2006년 여름단기선교 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주선교지를 캄보디아로 하는 이번 기획안은 중고등부 비전트립팀, 청년부/EM 비전트립팀, 장년 우물파기 사역팀, 장년 의료 선교팀 등 4개의 선교팀을 구성하여 선교지역인 캄보디아에 순차적으로 파송하기로 했다.

'Killing Field에서 Loving Field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사역은 캄보디아의 영혼과 땅이 하

가 되어 선조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을 은혜가운데에 되심어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지에서 들리는 소식은 항상 좋은 이야기들만은 아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선교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선교사역을 세워가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할 사명이 주님의교회에 있다. 대캄보디아선교사역이 이러한 도전과 시도의 새로운 선교역사를 써 나가게 될 것이다.

(3면에서 계속)

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선교지원자는 7월 한 달간 주 1회의 단기선교훈련학교에 참여하여 소그룹모임 및 단기선교사를 위한 필수 과정을 이수하면서 선교지의 이해, 선교사역의 실제 등의 과정을 마친게 된다.또 6월 26-28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선교부흥회에 참여한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선교사 파송국가

유소년 축구 클럽

3면



지난 4월 30일 유소년 축구팀은 서울체고 운동장에서 잔디구장 훈련을 갖았다.

즐거운교회 생활 캠페인5

3면

제4여선교회 봉사활동

4면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교육일정

기간 : 6월 4일~25일(주일)

매주 오후 1:30~3:30

대상 :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는 부모, 단, 부모 중 한 분 이상은 세례를 받고 부부가 모두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소 : 3층 초등부실

신청 : 1층 로비에서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 정재훈집사

011-289-2111

세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시작!

복있으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된 여러분이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 3:27)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1. "주 음성 외에는" _ 오늘 연주팀
2.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_ 고등부 워십팀
3. "너의 마음을 보여줘" (연극) _ 손경숙 이주연 김선령 최진영
4. "진짜 가정과 가짜 가정" _ 이 호 목사 (요한복음 15장 5절)
5. "우리 함께 걸어요" _ 최성은

4부예배 오늘의 주제는 『진짜 가정과 가짜 가정』이다. 고등부 워십댄스에 이어 오늘 연주팀은 사랑의 결정체이어야 하는 가정의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걸모습과는 다르게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퇴색된 현대가정의 모습을 풍자한 연극이다. 이어 이호牧사는 참된 가정이란 가식적인 걸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접붙여진 진정한 공동체여야 함을 전하게 된다. 말씀 후에는 청년부 최성은 자매의 특송이 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단원 모집

일 정 : 2006년 7월 26일~8월 5일
경 비 : 80만원(항공료및숙박)
인 원 : 25명
신청및문의처 : 장일형집사(팀장)
Tel : 019-240-6815
E-mail : ereindustrial@yahoo.co.kr

▶ 이번 여름휴가철을 이용하여 우리교회에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 이번 선교 여행의 주 임무는 아시아에서 가장 식수문제로 고통을 받는 나라중 하나인 캄보디아에 "먹는 우물 파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 이번 여행기간중 먹는 우물 5개를 파서 식수문제로 고통을 받는 현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힘이 될것입니다. 관심있는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좌석 관계로 인원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Missi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 현지에서의
첫 평가전을 치룹니다.” (?)
(×)

오는 6월 2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노르웨이 축구 대표팀이 독일 현지에서의 첫 평가전을 치룹니다. 평가전이긴 하지만, 우리 팀의 우승을 빌며, 혼동하기 쉬운 '평가전을 치르다'라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흔히, 평가전을 치루다, 값을 치루다, 초상을 치루다, 전쟁을 치루다, 시험을 치루다 처럼 무슨 일을 겪거나 마치는 것을 두고 '치루다'고 하는데, '치르다'가 맞습니다. '치르다'는,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는 뜻으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 옷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다 처럼 쓰고,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뜻으로, 시험을 치르다, 잔치를 치르다, 큰일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만도 하지처럼 쓰입니다. 따라서, '물건값을 치렀다'가 아니라, '물건값을 치렀다'로 써야 하고, '평가전을 치룹니다'가 아니라, '평가전을 치룹니다'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평가전을 잘 치러,
월드컵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하프타임강좌11] 지속적인 도시생활 대규모 도시 서울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1번째 하프타임강좌가 5월 23일(화)

3층 소년부실에서 이승일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주님의교회집사) “지속적인 도시생활”이란 강의로 열렸다.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는 도시환경 속에서 어느 환경이 제일 바람직한가. 또 앞으로는 '이런 환경에 살고 싶다.' 하는 도시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위치의 주거지, 알맞은 주택규모,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 등의 사회적 환경을 원할 권리를 가

질 수 있고 여유 공간, 녹지, 일조권, 고요함, 다양한 도시생활의 기능 연결, 문화적 기회, 운동 시설 등 환경적 요인도 요구할 권리도 갖는다 했다.

이교수는 현재 서울의 도시문제를 1)생활의 여유가 없는 과밀과 혼잡 2)지역/계층간 주거/교육환경의 차이 3)공원녹지 부족 4)신시가지 형성으로 인한 도시정체성 결여 등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문제 해결하고 녹지면적 확보하며 2)적절한 규모의 주택으로 토지절약과 열섬효과 감소의 효과를 얻고 3)합리적인 주거지선택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11번째 하프타임강좌 역시 많은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1시간 40여 분 가량 진행되었다.

유소년축구클럽 잔디구장 훈련

“유소년축구팀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2003년 가을학기에 시작된 유소년축구클럽의 축구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클럽기간 중 우리의 자녀들은 이용수

안수집사(전 한일월드컵기술위원장, 현 KBS 축구해설위원)와 체육과 코치들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운동장을 누비고 있다.(중등부:11시 30분, 초등부: 1시 30분)

자원봉사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 체육학과 의 대학생 코치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자세를 일일이 점검해주는 등 이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유소년축구클럽 잔디구장 훈련이 있었다. 유소년축구클럽은

매학기, 1회씩 미사리 잔디구장, 구리프로 클럽연습장에서 잔디 실전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 학교 운동



서울체육고등학교 잔디구장

장에서 훈련이 있었다. 150여명의 클럽 학생들은 2시간여 동안, 잔디구장에서 연습과 실

전경기를 가졌다. 이날은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홍민기 목사와 교육전도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잔디구장 실습훈련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축구팀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모든 스태프들과 코치들은 물론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2006 독일월드컵으로 한창 무르익어가는 축구의 봄 속에서 유소년축구클럽도 6월 18일 종강까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

"연약한 우리도 은혜 가운데에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중보기도사역자들의 정기 월례회가 지난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유치부실에서 열렸다.

정영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찬양의 시간은 중보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고백을 하게 했다.

이어서 정목사는 사사기 6:11-16을 설교하며 기드온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처럼 중보기도사역자들 역시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깨우친 정목사는 모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임을 선포하며 격려했다.

라파팀(장경숙, 정승아), 비전팀(장계영, 한혜정), 레위팀(박귀희, 김선희), 미션팀(김신애, 김영미), 엘리야팀(박경숙, 조명희)으로 구성된 중보기도사역팀은 매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친교 하는시간을 갖고 있다

5월의 중보기도사역팀 공동 기도제목

- 서로를 강한 용사로 세우기
- 6월25일 임직식 / 7월초 선거를 위해
- 구역마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주소서
- 기도의 용사를 보내어 주소서

학원선교팀

정신여자중학교 부흥회 지원



정신여자중교 교정

정신여자중학교의 2006학년도 신앙 부흥회가 지난 20일 10시 30분 대예배실에

서 있었다.

신앙부흥회는 중학교의 정기적인 행사로 2,00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번 부흥회를 인도한 고형진 목사(동산교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미래의 지도자와 어머니가 될 정신여자중학생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도 초대했다.

말씀 후에는 나이악(Nyaak)음대 4중창단의 찬양이 이어지면서 더욱 기쁘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학원선교부는 이번 부흥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였다.

즐거운교회생활 캠페인5 ‘

티타임(teatime)과 방황하는 컵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더욱 산뜻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는 특별한 ‘티타임’이 있다. 예배 전후 교회 로비, 강당의 앞마당, 설만한 물가에서는 온 성도가 즐길수 있는 커피와 동글레차가 준비된다.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감동과 여운을 차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지만 ‘컵들’ 에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때부터 컵들의 방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와 커피와 함께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곳에는 어김없이 성도들이 남기고 간 컵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강당의 곳곳으로 떠나간 컵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조차 쌓여있는 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봉사자들이 그러한 컵들을 수거해 오고 있지만 컵들의 방황은 그칠 줄 모른다.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이 마신 컵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힘든 수고와 컵들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수거 용기가 없을 때에는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조금만 더 수고하여 같이 노력한다면 예배 후의 평화로운 티타임을 더욱 산뜻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주차질서를 만들어갑시다!

주일과는 달리 주중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주변은 물론 학교정원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주차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글함글은 수차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성경공부와 각종 모임으로 주중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다음의 사항을 지켜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 오전시간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장애인주차장 확보하기
- ▶ 요일제스티커 부착차량은 요일제 준수하기

2006 임직자 일일 수련회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성장에 힘쓰기를...”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가 참여하는 임직자 일일 수련회가 5월 21일(일) 오후 2시부터 3층 초등부실에서 열렸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참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성장에 힘써 자기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모든 일을 교회를 위해 결정 하라고 했다.

이어 사역자의 성품, 사역의 본질, 사역의 동기, 사역의 척도, 사역의 권위, 사역의 목적, 사역의 도구, 사역의 특권, 사역의 능력, 사역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즐겁게 섬

위한 10가지 원리”를 통해 임직자들을 권면했다. 임직은 섬김의 직분이기에 계급처럼 군림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전하며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라고 권면 했다.

이창현 목사의 총회헌법 강의 후에 당회원들과 피택자들이 함께하는 다과의 순서로 일일 임직자수련회를 마쳤다.

수련회에 참석한 임직자들은 6월 25일 창립기념 주일 2부 예배에 임직식을 갖는다.



(1면에 이어서)

2006 여름단기선교 계획 확정

온 맘 다해 Killing Field에서 Loving Field로

전체 일정

- 5월 7일 _오전 10시 30분: 선교사역 본부위원 단기선교 기획안 확정
- 5월 14일 _단기선교 총괄팀장 및 참여 본부별 팀장 모임
- 6월 4일 _중간 점검 팀장 모임
- 6월 11일 _단기선교학교 기획안 확정 (강사 및 강의내용 등)
- 6월 26~28일 _선교부흥회
- 7월중 _매주 1회 단기선교훈련
- 8월 4~5일 _단기선교 참여팀 전체 1박 수련회
- 8월 12~21일 _청년부 비전 트립
- 8월 14~17일 _중고등부 단기선교사역
- 8월 14~17일 _장년 금홀 사역팀 단기선교
- 8월 14~17일 _장년 의료 선교팀 단기선교
- 8월 27일 _참가 사역팀별 평가회
- 9월 3일 _사역본부와 사역팀장 평가회
- 9월 10일 _2006년 단기선교 최종보고서

팀별 사역일정

- 중고등부 비전트립팀
일시 _ 2006년 8월 14일 ~ 15일
장소 _ 타케오 - 시엠리엵
- 청년부 & EM 비전트립팀
일시 _ 2006년 8월 12일 ~ 21일
장소 _ 방콕 -> 시엠리엵 -> 타케오 -> 호치민
- 장년 우물파기 사역팀
일시 _ 2006년 8월 14일 ~17일
장소 _ 캄보디아 전지역
- 장년 의료 선교팀
일시 _ 2006년 8월 14일 ~ 17일
장소 _ 타케오

희망의 트랙, 레인보우
조각케익 나누기, 감사의
편지쓰기, 야외예배...



4월에 달란트 시장과 친구초청 잔치를 한 레인보우는 어린이 주일(2일)을 맞아 조각 케익을 나눠서 먹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버지 주일(7일)에는 부모님을 위한 카네이션 만들기과 편지 쓰기를 했고 스승의주일(14일)에는 부서가 마련한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월 첫째 주일에 교회 근처 공원에서 야외예배가 계획하고 있는 레인보우는 9시 30분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모이는 예배공동체이다.